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본격 추진 ‘추어탕’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임실군·원광대, 오수면 반려동물 친화 도시 도약 위해 교육생 모집

임실군과 원광대학교가 오수면 반려동물 친화 도시 도약을 위해 손을 맞잡고, 전문가 양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군에 따르면 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책임교수 이현아)와 함께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첫 시작으로, 오수면에 위치한 오수반려누리에서 반려동물관리사 과정과 동물매개심리상담사 과정을 개설해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교육은 ‘반려동물 친화 도시 임실’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반려동물 산업 분야에서 전문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와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부터 반려동물관리사 과정과 동물매개심리상담사(2급) 과정을 순차적으로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반려동물관리사 과정은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동물매개심리상담사(2급) 과정은 8월 18일부터



임실군과 원광대학교가 오수면 반려동물 친화 도시 도약을 위해 손을 맞잡고, 전문가 양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10월 10일까지다. 신청은 임실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및 교육과정 등 문의는 원광대학교 RISE 사업단(063-642-7770)으로 하면 된다. 교육은 오수면에 위치한 오수반려누리 2층 교육실에서 진행되며, 수강비와 교재비가 전액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정별 모집 인원은 각 20명이다. 모집종료 후 반려동물관리사 과정은

9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월·화요일 저녁(18:30~21:30), 동물매개심리상담사(2급) 과정은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저녁(18:30~21:30)에 운영된다. 심 민 군수는 “RISE 사업을 통해 임실군이 보유한 역사·문화적 자산을 재해석하고, 이번 교육과정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과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남원시, 미꾸리 대량생산 위한 양식단지 조성 추진

남원시는 전국으로 퍼져나간 남원추어탕을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 추어탕의 원료를 남원에서 생산하기 위해 남원지역 추어탕의 본래 재료가 미꾸리임을 확인하고, 전국에서 소요되는 물량의 96% 이상 사용되는 중국산 미꾸라지를 대체하여 남원 미꾸리 대량생산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미꾸리 대량생산 및 실내양식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2010년 미꾸리 치어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 2016년부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미꾸리 성어 대량생산 기술을 연구해 2021년 특허를 등록하고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남원시는 개발된 미꾸리 실내양식기술을 토대로 관내·외에 공급할 미꾸리 대량생산을 위해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 해양수산부 내수면양식단지조성사업에 공모해 사업비 70억원을 확보하여 주생면 중동리 지역에 4ha 규모의 양식단지 부지조성을 추진해 2024년 완료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56억원을 확보하여 양식 단지 부지에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공유양식장 20동, 유통축양 시설 1동 등을 조성중으로 2025년 10월 준공예정이다. 공유양식 플랫폼은 조성된 미꾸리 양식장을 임대형으로 운영해 미꾸리 양식을 위해 필요한 시설투자비를 절감하여 미꾸리 양식 창업과 관외에서 남원으로 미꾸리 양식 창업을 희망하는 정업자의 입주를 유도, 미꾸리 양식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공모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 10월경 대상자를 선정하고 미꾸리 생태, 양식현황 및 양식기술 교육 등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농작물 폭염·호우 피해 예방 총력

순창군은 올여름 잦은 폭염과 국지성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대응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7월부터 기상청의 단기·중기 예보를 토대로 농작물과 시설별 기상재해 대응 요령문자, 마을방송, 이장회보 등을 통해 농가들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피해에 취약한 과수와 시설원예 작물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단을 운

영하여 배수로 정비, 피복 비닐 보수, 지주시설 결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하는 등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해 △농업용 중형관정 지원 △관수 시설 보강 △노후 비닐하우스 기자재 교체 △차광막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하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읍지연습 마무리

임실군이 21일 오후 3시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읍지연습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2025년 임실군 읍지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로 57회를 맞은 읍지연습은 ‘전국민이 함께하는 민·관·군 통합 읍지연습’을 목표로 비상사태 시 기관별 대응 역량 제고 및 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이버·신무기 공격에 대한 대응강화를 위한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비상태세 확립을 목표로 실시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중대재해 예방 공사현장 특별점검

최영일 순창군수, “군민 안전 최우선”... 현장 찾아 점검 추진

순창군이 군 발주 대규모 공사현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확인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령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지와 더불어, 최영일 순창군수의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인 16개 현장으로, 구조물공사 7



건, 도로공사 2건, 관로공사 3건, 하천·공원 정비 등 기타 4건이다. 오는 8월 26일 구립·복흥·쌍치면, 27일 동계·적성·유동·인계·순창

읍, 28일 팔덕·풍산면 현장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으로, 점검에는 안전재난과를 비롯해 7개 부서가 참여한다. 먼저 각 사업부서와 시공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해 최영일 군수가 직접 현장을 찾아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근로자 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 지급·착용 상태 △추락·끼임·넘어짐 등 재해 예방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포함한다. 최영일 군수는 “군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행정은 없다”면서 “작은 위험 요소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관리해 안전 사고 없는 순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27일 열린소통 시민보고회 개최

남원시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공무원 등 약 600명이 함께하는 남원시와 함께하는 열린소통 시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기회발전특구 및 KTX 남원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추진 방향을 시민에게 쉽게 설명하고,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의 그간 경과와 향

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정책 정보를 한자리에 공개하고 시민 질문에 현장에서 답함으로써 미래 도시 비전을 시민과 함께 그려 나갈 계획이다. 행사는 최경식 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안순엽 기획조정실장이 기회발전특구와 KTX 남원 역세권 투자선도지구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이

어 노경록 관광과장이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의 경과와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이후에는 최 시장과 전문가, 시민이 함께하는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남원시는 시민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 내용을 주제별 프레젠테이션으로 제공하고, 현장에서 남원 3대 축제(드론제전·홍부제·문화제야행) 홍보자료도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군, 새솔중 소프트 테니스 인조잔디구장 완공

지난 20일 새솔중학교 소프트 테니스 인조잔디구장 완공식을 개최했다. 1975년 준공 이후 50년 만에 기존 경기장에 소프트테니스 인조잔디 코트 3면 전용구장으로 조성했다. 군비와 도비 3억원을 투입해 전국 전국대회 경기에 인조잔디구장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선수들 훈련의 효율성과 경기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한편 순창 새솔중(순창여중) 소프트테니스는 1975년 이승길 선생이 감독으로 부임하여 소프트테니스(연식정구) 발전에 힘써 1979년 전국추계연맹전 단체전 우승, 1980년 전국종합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 1981년 제62회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순창의 명성을 전국에 떨쳤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20일, 전국적 동시 진행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번 훈련은 화재·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차량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길 터주기 행동을 생활화하기 위해 추진, 남원소방서는 의용소방대원과 주요 교차로 및 도심 일대에서 캠페인을 전개하며 출동로 확보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소방 관계자와 인본인이 긴급차량에 동승해 통행 곤란 지역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는 계기를 제공했다. 김승현 서장은 “시상으로도 출동로 확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